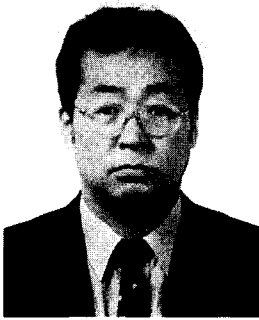


국내외 건전음주문화 정착의 실태와 풀어야 할 과제



조 성 기

< 한국생산성본부 정책사업팀장 >

1. 음주와 알코올 문제

사람들은 건강이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는 분노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물론 누군가 마시자고 할 때 그저 마시기도 하며 중요한 행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기도 한다. 술은 인간이 가장 사랑해 온 기호품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술을 마시는 행동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음주문화는 각 국의 사회, 경제 및 역사를 반영하는 총체적인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별로 술을 마시는 방법상의 특성은 차이가 나지만 지구상 어느 나라건 술을 싫어하는 국민은 찾기 어렵다. 물론 기후가 술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종교적인 금기로 되어 있는 나라는 예외가 된다.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연간 순 알코올을 10리터 정도는 마시는 셈인데, 이는 소주로 1주일에 2병 꼴이 되니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문제는 술은 적당히 마실 경우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마시거나 과하게 마시면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알코올의 문제는 통상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 중 일부분이며 비중

■ 目 次 ■

1. 음주와 알코올 문제
2. 건전음주문화의 정의와 정착 방법론
3. 외국의 음주문화 실태와 선진국의 노력
4.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문제점
5. 우리나라 건전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
6. 결 어

도 상당히 작은 편이다.

알코올 문제는 알코올 남용과 의존이지만,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의 50% 살인의 49%, 강간의 52%, 폭행의 62%, 자살의 30% 정도가 알코올과 관련된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폭행의 80%가 알코올과 관련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 알코올 문제에 관한 한 결코 뒤쳐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같은 비용은 전체 알코올 문제 중 그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주된 문제는 알코올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건강관리 비용 등이다. 상당수의 기업인력이 전날의 과음과 낮술로 인해 생산성이 삭감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또한 전세계적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관련한 결코 후진국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술 마시는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사회 전체로 볼 때 알코올로 인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매우 작은데도 문제 중심적 사고 틀로 보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로 인한 문제와 무관하며 술을 통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모든 음주자가 술로 인한 문제를 가질 수 있지만 문제가 없는 음주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건전한 음주를 통해 알코올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 결과는 알코올 문제의 예방 또는 방지 차원을 넘어 개인의 건강, 가정의 행복, 산업의 생산성 향상, 국방력의 강화 등 광범위한 범위를 망라한다.

2. 건전음주문화의 정의와 정착 방법론

그러면 건전 음주문화란 무엇인가? 어떻게 마시는 음주행태가 건전한 음주문화를 의미하는가? 이는 통상 음주량과 음주 빈도와 음주의 타이밍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성, 체중 등에 따라 격차가 있지만 적당하게 마시는 양과 빈도, 그리고 마셔야 할 때와 마시지 않아야 할 때를 지정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음주자가 그것을 잘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음주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25%가 음주를 하지 않고 있으며 55%는 알코올 문제가 없다. 나머지 20%가 문

〈 음주 동기와 알코올 문제 〉

음주하는 동기			음주로 인한 문제		
기쁨	극복	기회	사회	심리	신체
건강, 맛, 파티, 일의 순조로운 진행, 휴식, 반주	화, 우울, 지루함, 좌절, 슬픔, 죄의식, 외로움, 교체, 애정표현, 주장, 잠 안올때, 해장술, 육체적 고통, 어려운 과업 등	사람 사귄 때, 누군가 마시자고 할 때, TV 볼 때	가정 문제, 이혼, 부랑자, 근무 장애, 실업, 재정 곤란, 사기, 채무, 범죄	불면, 우울, 근심, 자살, 성격, 기억 상실, 섬망증, 신체적 불균형, 환각, 치매, 광란, 도박, 약물 남용	간지방, 간염, 간경변, 간암, 위염, 체장암, 식도암,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마비, 뇌손상, 성기능 이상, 불임, 태아손상, 유방암 등

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 중 11%가 음주로 인한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그 일부분인 10%정도이다. 음주량으로 볼 때 문제가 작더라도 빈도가 잦거나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적은 술도 자주 마시면 알코올 의존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청소년기나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건전한 음주자 비율은 알코올 남용자와 오용자를 합쳐 전체 인구의 약 25%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음주행태를 건전하게 바꾸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음주문화가 사회경제적, 역사적 유산임은 누구나 아는 것이니 만큼 건전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건전음주는 위험이 보통이거나 높은 음주자들의 위험을 줄이고 위험이 낮은 음주자들의 위험이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일이어서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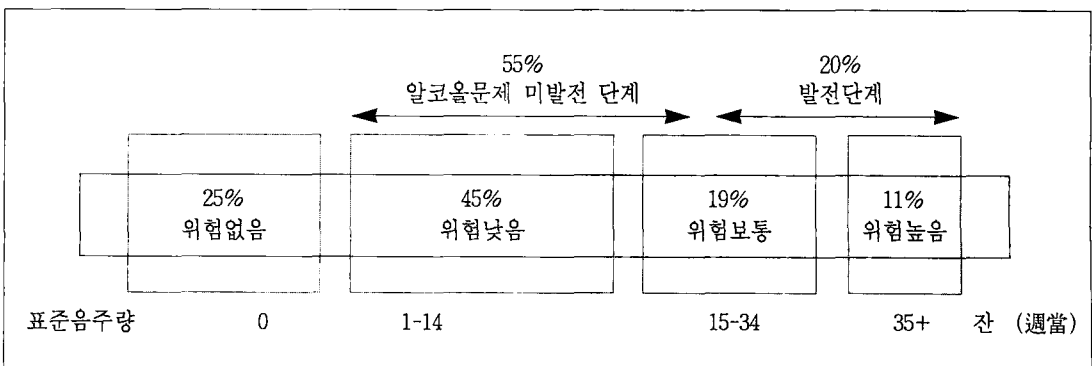
건전음주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의 어려움은 음주를 둘러싼 적정음주와 금주라는 두개의 상반된 개념이 존재함을 이해해야 하는데 있다. 사실 적정음주를 의미하는 건전음주문화 개념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분명하지 않았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좋지만 일단 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술을 끊어야만 해결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지금도 알코올 문제는 금주로 해결해야 한다는 禁酒觀이 보건계의 주된 생각이며 금주관의 주장은 "알코올 중독은 고칠 수 없다. 적정한 음주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적당히 마셔도 사고는 발생한다. 심장병에 도움이 되려면 와인 보다는 포도 주스를 마셔라."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알코올 문제를 적정음주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다는 건전음주문화 정착 노력은 간단할 수가 없다.

건전음주문화 정착의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정착 방법의 다양성이다. 건전음주문화의 정착에는 교육과 홍보 뿐이 아니라 규제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다양한 수단은 다양한 활동 주체를 요구하며, 조화된 프로그램의 실행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알코올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調란 너무나 먼 목표이기 때문이다.

건전음주문화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술 마시는 인간 자체가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주자의 행동 변화는 인식,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홍보, 교육, 규제가 시의적절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욱이 주요 대상인 문제 음주자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변화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다양한 방법이 구사되어야 한다.



〈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주요 활동 내용	주요 활동 주체
규 제	가격규제, 시간, 연령, 장소규제, 광고규제, 경고문구 부착, 음주운전 처벌	정부, 지방자치단체
홍 보	캠페인, 포스터, 브로셔, 리플렛, 책자, 역광고	민간단체, 언론, 정부
교 육	대학생, 청소년, 기업, 임신여성, 군인 등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민간단체, 학교, 동료 집단, 정부

3. 외국의 음주문화 실태와 선진국의 노력

통상 선진국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실이지만 문제음주의 경우는 예외가 아니다.

세계각국의 순 알코올 소비량 추이를 보면 알코올 문제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선진국 음주는 전혀 줄어든다고 볼 수 없으며 알코올의 사회적 비용의 추계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음주량은 후진국에 비해 절대량이 2배 정도로 많다. 북미와 유럽 지역은 대체로 '70년대 이후 감소 추세이나 '80년대 이후 정체 추세이며, 영국은 '90년대 초까지도 증가세를, 일본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선진국 음주량은 소득의 증가와 함께 상향조정된 상태에서 정체하고 있다고 하면 틀림이 없다. 또한 과음국의 음주량은 줄고 음주량이 적은 나라의 음주량은 늘고 있음은 술에

대한 선호도가 전세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현상을 건강기구인 WHO 와 Eurocare가 '80년대 후반부터 노력해온 "25%의 주류 소비감소운동"의 성과를 감안할 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노력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알코올 문제가 소비 감소를 위한 홍보와 교육보다는 적당하고 분별있게 마시게 하는 노력 (Moderate & Responsible Drinking)이 오히려 효과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알코올 문제는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크다. 따라서 선진국의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각별하다. 이는 알코올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체로 국민총생산의 2~3%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다. 사회적 비용은 작업장 손실, 연구, 예방, 교육 훈련비, 주세, 질병, 사망, 범죄들로 인한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특히 작업장 성과 하락의

〈 알코올 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

국가	사회적 비용	국가	사회적 비용
미국	31,424백만 달러 (1971)	영국	1,614.50백만 파운드 (1985)
	70,338백만 달러 (1985)		
	99,000백만 달러 (1993)		
캐나다	5,700백만 달러 (1988)	일본	6,637,495백만엔 (1987)

(자료:각국 통계자료)

87.5%, 지각의 81.4%, 결근의 78.0%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통계는 유럽의 과음과 낮술 문화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선진국을 통틀어 볼 때 문제 음주자의 비중은 10% 수준이며 문제 잠재 인구의 15% 정도이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느나라에나 있으며 전인구의 15~25%로 국가별 격차를 보인다. 선진국의 문제 음주는 주로 상습 음주 운전, 주말 폭음, 근무 중 낮술, 퇴근길 한잔, 또래 집단의 권유, 임신 여성의 음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건전 음주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모두 나서고 있으며 주로 정부는 규제와 교육, 민간은 홍보활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류업계는 '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그들 정부는 세수중심의 조세정책에서 국민건강차원의 규제정책을 펴고 있으며, 음주자의 행태변화를 통해 알코올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국은 현재 "적정 음주관"과 "금주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정부는 여지껏 금주관을 배경으로 한 활동을 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최근 미국의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연구소(NIAAA)도 적정한 음주와 건강과의 관계에 연구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국가들은 이미 예방을 통

한 문제감소(Harm Reduxction)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적정음주를 통한 건전음주문화 육성 노력은 단순히 민간보건기구의 몫이 아니다.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동서양의 차이가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서양에 비해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정부에서 알코올 문제에 상대적으로 등한시 함을 볼 수 있다. 최근의 갤럽보고서에는 "알코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의 비율을 서양(75%) 제국에 비해 일본(15%)이 1/5수준임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의 실제와 인식상의 차이는 대응정책의 격차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서양에서는 홍보 팸플렛의 앞면에 적정한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인이 분별있게 마실 것(Responsible Drinking)을 권유하지만 일본에서는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말 것, 자신의 주량 만큼만 마실 것, 좋은 안주와 마실 것 등 개인 뿐만이 아니라 집단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의 차이를 보인다. 동서양의 방법 차이는 문제의 원인을 달리 분석하기도 한다. 한 쪽에서 개인의 체질을 강조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생활관습을 강조한다.

이는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전음주문화 활동이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숙고한 후 방법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음주 행위에서의 문제 〉

구 분	실 태	구 분	실 태
취한 빈도	10회 음주 중 • 5회이상(12.9%) • 3~4회(13.7%) • 1~2회(33.0%)	음주행태	• 술잔을 들림 74% • 단시간에 많이 마심 64% • 폭음 62%
음주차수	2차이상 음주 54.7%	음주빈도	• 자주 음주 28% • 적정 이하로 음주 72%

4.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문제점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하고, 싸우고, 다음날 다시 웃으며 같이 일한다”고 한다. 이는 폭음 문화, 폭행의 80%가 알코올 문제라는 발표 결과, 술로 인한 문제에 관대한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다. 과음한 다음날 출근을 안한 Mr. Kim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Mr. Kim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경우 미국인들은 55%가 “Mr. Kim은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8%가 일주일의 3회 이상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회 음주중 3회 이상 취한 사람들이 27%가량 되었다. 음주 차수도 55%정도가 2차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잔을 돌리거나 폭음하는 자도 60%~70%를 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 중 상당수가 음주 빈도도 잦고, 한번에 많이 마시며, 음주 습관도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음주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고 여성의 음주가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집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접대나 모임등 술자리가 많으며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대응책 부족에서 음주는 증가한다고 하고 있어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환경적 조건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음주로 인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음주 경험(82%), 과음 경험(74.5%), 음주할수록 오래 많이 마시게 되는 경험(41.6%) 등의 순이었으며, 음주운전 경험(25%), 지각과 결근 경험(36%),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준 경험(10%) 등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도 필립이 끊긴 경험(49%), 후유증으로 약을 복용한 경험(37%), 집안 사람 중 심각한 음주 문제를 경험한 경험(25%) 등도 높은 수준이었다.

사실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대한 음주 문화로 인해 문제 음주자의 절반 이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접대문화는 2차 이상의 음주를 강요하고 음주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다. 알코올 중독의 초기 진단방법인 CAGE 법으로 측정된 중독자수가 450만명 정도로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 스스로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83%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음주운전 단속(92.1%)과 청소년 교육 및 판매제한(85.0%), 치료시설의 보강(88.5%)등에 대해서도 높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건전음주문화 정착 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실행을 막고 있는 장막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건전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고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통해 알코올 문제를 예방하려면 규제와 교육 및 홍보를 적절히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음주 문제에 관한 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먼저 기초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없으므로 홍보를 하건, 교육과 규제를 하건 주먹구구로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음주행태는 물론 음주인식, 태도, 가치관 및 경험, 음주로 인한 각종 유병율과 사

망울 및 생산성에의 영향을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여야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캠페인의 차이는 모두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단을 의미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과연 이러한 차이가 기관의 입장 차이 만을 나타내는 것일까? 오히려 이는 연구 조사 결과인 과학적 지식에 대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옳을 것이다.

더욱이 자료가 없으면 정책의 전략적 방향이 달라지기 쉽다. 문제의 소재가 정확하지 않을 때 자원이 충분하다면 알코올 문제의 해결이 어렵지 않지만 제한적 자원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려면 올바른 전략 방향을 선택하지 못해 자원의 낭비가 크게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알코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행동 변화를 통해 예방 활동을 하려면 먼저 목표 집단을 선정해야 한다. 그 목표집단은 일반대중과 같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학생, 청소년, 기업체 종업원, 알코올 중독자를 부모로 가진 아이들 등 다양하다.

목표집단이 선택되면 해결주체가 할일을 효과성을 기준으로 할당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할 일과 민간의 할 일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는 시간, 연령 규제, 광고 규제 등 규제를 정부가 담당하지만 사실 정부의 활동이 그것에 그쳐서는 변화가 가시화되기 어렵다. 규제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교수나 교사가 담당하기로 하지만 동료집단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개인적으로도 상담을 하지만 집단적으로도 하고 가족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도 한다. 다양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만 적재적소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음주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한다. 누구나 다 아는 “잔 안돌리기”, “안 섞어 마시기”, “2차 안가기”, “강요하지 않기”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과 규제 그리고 홍보 활동이 거듭된 시행착오를 통해 끝없이 이루어 질 때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건전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치료와 재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 중독의 치료와 재활은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건 정책의 담당자들에게 까지도 생소한 일이다. 그런데 새는 한 날개로는 날지 못하면 두 날개가 있어야 한다. 치료와 재활이라는 관념이 국민의 인식속에 정책속에 살아 있어야 건전음주문화라는 개념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 캠페인 주체별 메시지의 차이 〉

캠페인 주체	메시지 내용
보건복지 담당부서	적은 양의 술로 건강을 지킵시다.
주류협회 관련기관	적당한 양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관련단체	금주를 통해 건강을 되찾읍시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되지 않은 음주자들을 위한 건전음주문화 정착의 전략적 시스템 옆에는 반드시 문제가 진전된 음주자들에 대한 치료재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6. 결 어

우리나라에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 활동이 없었다. 무엇이 건전음주문화인가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 물론 구체적인 목표도 없는 실정이다. 건전한 음주자가 몇 %이고 불건전한 음주자가 몇 %인지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그들이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다. 다만 어떠하리라는 생각을 선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건전음주문화를 정착하고 알코올 문제를 예방하려는 모든 시도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알코올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누차 지적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주류와 관련된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것이 확실하지만 그것이 음주 행태를 변화시킬 것인지 의문이다. 소득수준 향상, 음주층의 다변화 등 환경 변화는 음주로 인한 문제를 보다 양산할 것이다. 건전음주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징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An expert is one who knows more and more about less and less.

전문가란 더욱 작은 것에 관해서 더욱 많이 아는 사람이다.

- Nicholas Murray Butler -

唐詩 감상 / 손적의 詩

宿雲門寺閣

동산 밑의 운문사

안개 속 꽃은 세상 밖에 그윽한데

산봉우리 저녁에 등불을 달고

五湖의 가을에 장막을 걸는다.

그림벽에는 기러기 희미하고

흰 창에는 斗牛가 잔다.

하늘 길이 가까운가 의심하다가

꿈에 흰 구름과 함께 놀았다.

香閣東山下
煙花象外幽
懸燈千嶂夕
卷幔五湖秋
畫壁餘鴻雁
紗窓宿斗牛
更疑天路近
夢與白雲遊